

보도시점 2025. 6. 25.(수) 11:00
(2025. 6. 25.(수) 석간)

배포 2025. 6. 24.(화) 16:00

과기정통부, '무선전력전송 상용화를 위한 실증 시험(테스트) 시설' 첫삽

- 6.25.(수),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시험장(테스트베드) 착공식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6월 25일(수) 오전 11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897(경북대학교 달성캠퍼스)에서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시험장(테스트베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 기획과장, 이시철 경북대학교 교학부총장, 최운백 대구시청 미래혁신성장 실장, 최재훈 달성군수 및 무선전력전송 산·학·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착공식 개요 】

- ▶ (일시 및 장소) 2025년 6월 25일(수) 11:0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897
- ▶ (참석자) 추경호 국회의원,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 최운백 대구시청 미래혁신성장 실장, 최재훈 달성군수 및 무선전력전송 산·학·연·관 관계 등 100여명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테스트베드는 2026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전기차, 로봇 등에 적용할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실증을 위해 실제 환경을 모사한 시설로 부지면적 12,896㎡, 건축면적 88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착공식은 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경과보고, 환영사, 축사, 주요 내빈 시삽 의식(세리모니)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축사에서 “무선전력전송은 스마트폰, 착용형(웨어러블) 기기에서 생활가전, 차세대 이동수단(모빌리티), 태양광, 위성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다” 라며,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시험장(테스트베드)이 구축되면, 기업에서 자유롭게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나라의 무선전력전송 기술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경우 (044-202-4920)
		담당자	사무관	오성교 (044-202-4926)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개요

- (수행기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 전담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 (사업기간) 2024년 ~ 2026년 (총3년)

- (총사업비) 150억원 (국비 75억, 대구시비 25억, 민자 50억)

- (사업위치) 경북대학교 달성캠퍼스

※ 부지면적 : 12,896 m² (약 5,878평), 건축면적 : 880 m² (약 266평)

□ 추진내용

- (구축목적) 전기차, 로봇 등에 적용할 무선전력전송 기술 상용화 추진을 위해 플랫폼모델 개발 및 실환경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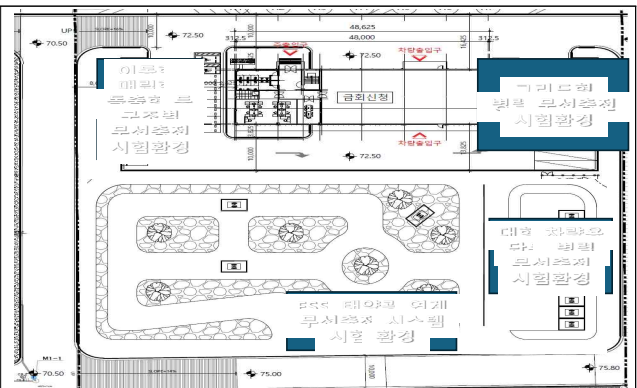
- 자동차, 산업용 로봇, 카트 등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테스트베드를 구축

- (구축방안) 전용 건물 신축 및 실환경 테스트 및 기업지원이 가능한 테스트 환경 구축 및 운영

- 송·수신 전력변환 모듈, 송·수신 패드, 병렬 제어기 등 플랫폼을 개발하여 실환경 테스트베드에 적용



[테스트베드 조감도]



[테스트베드 시험 환경]